

모퉁이돌선교회  
2022

# 전회원기도회

북한을 **공홀히**  
여기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은 공홀을 베푸니  
마침내 공홀히 여김을 받으리라(마5:7)

## 모퉁이돌선교회는

1985년부터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제자를 삼고 더불어 사역하며 북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성경배달, 신학교배달, 선교사배달, 교회개혁, 방송, 구제배달 사역을 통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 특히 고통받는 북한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힘을 쏟고 있으며, 중국과 소수민족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나라와 지역은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

# 북한을 공홀히 여기겠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은 공홀을 베푸니 마침내 공홀히 여김을 받으리라(마5:7)

우리는 하나님께 공홀히 여김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모퉁이돌선교회는 2022년 10월 29일 ‘북한을 공홀히 여기겠습니다!’ 주제로 전회원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공홀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주의 자녀이며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물리적, 정서적, 영적 배고픔을 공홀히 여기며 기도할 때,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목 차

### 남한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

1. 영적 죄악을 위한 기도 -6
2.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17
3. 교육을 위한 기도 -21
4. 기업과 경제를 위한 기도 -24
5.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27

### 북한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

1. 지하성도를 위한 제사장적 기도 -32
2. 순교자들과 순교 지역을 올려드리는 기도 -35
3. 최근 북한 상황을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 -40
4.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 -46

# 남한을 공홀히 여기는 기도

내 령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령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대한민국에 행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가 대한민국의 영적, 혼적, 육적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대한민국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대한민국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대한민국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반도에 우리 민족을 심으시고 5천 년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가꾸고 돌보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이 흑암의 땅에 1816년 영국 함선의 함장 맥스웰과 바실 홀을 통해 처음 한 권의 영어 성경이 전해지게 하시고, 1832년 귀츨라프 선교사를 통해 고대도 주민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시작하셨고, 1866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로 성경을 전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복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한을 공홀히 여기는 육적, 혼적, 영적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 영적 죄악을 위한 기도

영적

## 공홀히 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출 20:3)”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가 범한 영적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 1) 개인과 가정에서 행한 죄를 회개

“당신의 크신 공홀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으니 과연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느9:31)” 말씀에 힘입어 개인과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다니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 하에 예배하는 시늉만 냈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탐하여 세속화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mammon을 숭배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4) 탐욕과 음란과 사치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5)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6)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라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7) 기독교인의 50%가 이혼하는 간음과 성적 타락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8)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는 영적 게으름과 무지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9)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행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주께 아뢰며 회개하는 데 민첩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2) 교회의 죄를 회개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불순종한 것은 그들도 역시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을 얻으려 함이다(롬11:31)” 말씀에 힘입어 한국 교회의 영적 죄를 회개합니다.

- (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출20:7)” 하셨음에도 한국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인정하는 WCC, WEA와 손잡고 연합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불려도 마땅한 영적 타락으로 가득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복음을 곡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4) 교회 지도자들이 명예와 권력의 종이 되어 단체장 노회장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금권선거로 직을 사고 파는 탐욕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5)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으로 자행하는 간음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6)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온갖 사기와 거짓으로 성도를 실족케 하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7) 목회자의 영적 경건과 능력 대신 학력과 스펙을 기준으로 삼고 학력위조도 서슴지 않는 거짓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8) 교회 직분을 섬김이 아닌 명예와 힘을 자랑하는 상징으로 생각하고 교회 위에 군림하고 직분을 남용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9) 선교하지 않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10)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는 말하면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11) 목회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교회의 크기로 성공의 기준을 삼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12) 영적 힘을 잃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현상을 방지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13)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14)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15)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 념과 당 짓는 것과 분리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교회가 자행하는 죄를 드러내어 주사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3) 국가의 죄를 회개

“자비와 용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반역하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종들과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베푸신 그의 룰법을 따라 우리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단9:9-10)” 말씀에 힘입어 남한의 영적 죄를 회개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출20:7)” 하신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고 관철시키려는 죄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 여성의 프라이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이미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은 역차별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해외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성별’ 용어에는 남녀 이외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끔 현행 성별 결정 제도를 시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교육 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과 표현·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 병역, 성별,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악법인데 이를 추진해서 국가적으로 영적 죄악에 빠지게 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공활히 여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령을 따랐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며 우리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어 우리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공활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써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엡2:1-5)” 말씀처럼 진노 중에 있어 자격 없는 남한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공활히 여겨 주시고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죄로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죄의 침륜에 빠지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백성을 세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깨어서 기도에 전념하여 구별되게 하시는 공활이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이때에 예수께서 나아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마28:18-20)” 말씀에 한국 교회가 순종하여 2021년 167개국에 22,210명의 장기 선교사와 402명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929명의 외국 국적 선교사들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공활이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에브라임아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너를 넘겨주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스보임 같

이 다루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움츠러들고 나의 모든 련민이 끊어오르니(호 11:8)” 말씀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조성하시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념의 갈등과 분열로 뒤덮이는 중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오늘까지 인같이 가슴에 품어 보호하신 공활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공활히 여김을 받았으니 공활히 여기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공활이 크니 당신의 정의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시119:156)”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에 공활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 1) 개인과 가정에 공활을 구하며 간구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경에 처하였을 때에 당신께서 나의 자리를 넓히셨으니 이제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시4:1)”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의 공활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 (1)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하거나 아예 여행을 다니며 즐기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활을 받은 우리도 공활히 여기겠습니다.
- (2) 성도들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탐하여 세속화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공활을 더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공활히 여기겠습니다.
- (3) 맘몬을 숭배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 (4) 탐욕과 음란과 사치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에서 돌이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1:45)”는 말씀을 붙들고 행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5)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라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모범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6)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50%가 넘는 작금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부가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간음과 성적 타락에서 떠나 도리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풍성한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 (7)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개인과 가정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개인과 가정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 2) 교회에 긍휼을 구하며 간구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긍휼은 심판을 넉넉히 이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듯하게 입으라 배불리 먹으라 하고서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야고보서2:13,15-17)” 말씀으로 교회의 죄에 긍휼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 (1)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지탄받아 마땅한 영적 타락으로 가득했던 죄악에서 이제는 돌이켜 환골탈태하는 영적 갱신을 이루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2)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긍휼을 더하소서.
- (3)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여 강단에서 타협 없는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찢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하옵소서.
- (4) 교회 지도자들이 명예와 권력의 종이 되어 죄와 타협해 세상 방법으로 직을 사고 파는 탐욕의 죄에서 돌이키고 성적 타락과 간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5)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닌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 (6)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출20:3)” 하신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아닌 것에 절하고 따르는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 (7) 모든 불의를 버리고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죄악에서 떠나게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9)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마을마다 거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주일학교마다 어린 생명들이 가득 차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 (10)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 3) 국가에 공화를 구하며 간구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헌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당신의 물림가산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찌하여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해야 합니까 하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분개하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공화를 베푸시고(을2:17-18)” 말씀으로 국가의 죄에 공화를 구하여 간구합니다.

“이러한 리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녀인들은 본성에 어울리는 관계를 어긋나는 관계로 바꾸었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본성에 어울리는 녀인들과의 관계를 버린 채 자기들끼리 서로 음욕이 붙붙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그 악에 상응하는 형벌을 그들 자신 안에서 받았다(롬1:26-27)” 말씀으로 간구합니다. 국회에 상정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제거되도록 공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법을 극구 관철시키려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사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공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악한 세력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기도하는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백성과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죄가 관영함에도 공화를 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대한민국을 공홀히 여기겠습니다.**

#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사회

## 한국 사회의 타락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에 내가 지은 죄를 당신께 자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백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시 32:5)” 말씀으로 한국 사회에 관영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1)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결혼 건수는 19만 3천, 이혼 건수는 10만 2천으로 이혼율이 52.8%에 이릅니다. 이로 인하여 양산되는 자녀의 방치와 타락, 가정경제 파탄 등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한국에서 자행되는 낙태 건수는 인구 1천 명당 20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하루 3천 건, 매년 110만 건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 여기는 엄연한 생명기에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출20:13)”고 강력하게 경고한 하나님, 이 땅에서 1년에 무려 110만 건의 낙태가 자행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2021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는 1만 3천3백52명,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출20:13)”고 경고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자행되는 자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 (4) 2020년 경찰청이 발표한 한국 성범죄 강제추행과 강간 건수가 2만 1천7백17건이고, 불륜과 간음과 성적문란과 음란이 청소년과 젊은이에게 관영하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가 매년 30.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출20:14)”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성범죄와 음란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5)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이나 인터넷, 도박,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연간 109조 5천억입니다. 4대 중독 중 하나인 알코올 중독으로 2019년 기준 3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13년 기준 9조 4천억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쓰였습니다. 마약 중독은 10만 명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이용해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는 국제유통의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는 220만 명으로 7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쓰이고 있으며, 인터넷 게임 중독자도 233만 명에 이릅니다. 4대 중독자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618만 명으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수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중독에 빠져 인생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6) 한국 방송과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영되고,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거리에서 대대적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백성의 마음에 거부감 없이 스며들어 도리어 동성애가 죄임을 지적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행하는 것

이 부끄러운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성애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7)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무속, 샤머니즘, 사단에 속한 것들을 문화 콘텐츠로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죄악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라는 미명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귀신의 문화를 조장하고 관광 상품화하며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출20:5)”이니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자행되는 각종 우상숭배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8)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성범죄 등이 조장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거짓을 조장하고 악성 댓글 등으로 공격을 일삼으며 인터넷상에서 비난과 폭력의 강도를 더하는 만연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고 잠시 내가 네 앞에서 넘치는 진노로 나의 얼굴을 감추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는 너의 구속자 여호와와의 이르심이다 이것은 나에게 노아의 때와도 같으니 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땅을 덮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맹세하였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고 너를 꾸짖지 않기로 맹세하였은즉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의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평화의 계약은 제거되지 않으리라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의 이르심이다 (사54:7-10)” 말씀과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 사회 곳곳에 죄악이 차고 넘치는 중에도 긍휼을 넘치게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 한국 사회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다가가자(히4:16)” 말씀과 같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한국 사회의 죄악이 사함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1)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혼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마19:6)”고 하신 말씀처럼 가정을 이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 있는 인내와 성숙함으로 끝까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여 풍성한 사랑과 안위를 누리는 가정들로 충만한 사회가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2) “살인하지 말라(출20:13)”고 명령하신 하나님, 한국에서 자행되는 낙태가 중지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잉태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태어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3) 살인하는 것이 분명한 죄악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한국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자살의 죄악이 그쳐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1:45)”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와 성폭력, 성매매, 강간, 불륜과 음란의 급증하는 죄악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사회가 되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5) 4대 중독으로 일컫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등으로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쾌락과 유희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충만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6)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미디어 콘텐츠들이 중지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복하여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공흠을 더하여 주옵소서.
- (7)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출20:4)”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사단을 숭배하도록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이 그쳐지고 그곳에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문화가 가득하도록 공흠을 더하여 주옵소서.
- (8)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중지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선한 문화가 정착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공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 곳곳에 상처와 죄악이 많음에도 공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한국 사회를 공흠히 여기겠습니다**

# 교육을 위한 기도

교육

## 올바른 교육을 실행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엄마보다 제가 집에 더 늦게 와요.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 4개를 다녀오면 저녁 8시 30분이 넘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이는 직장에서 엄마가 귀가하는 시간보다 늦게 집에 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은 학원을 다닌다고 설명합니다. “어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개네 집 아파트 평수가 33평이에요. 우리랑 같아요.” 하는 아이의 말에 아이 엄마는 “요즘 애들이 다 저래요.”라며 민망해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작은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부모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녀인들이 아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로 그의 입을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만가를 가르치고 각기 그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렘9:20)”** 탄식하는 말씀으로 올바른 교육이 실종된 죄악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 (1)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교육 중심으로 실행되는 작금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일류, 즉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전인적인 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의 선별적인 교육 행태를 일삼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4) 학교에서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무차별적 구타와 폭력으로 내모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5)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사명을 상실한 교사들은 아이들을 소신껏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의 자유와 자율,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교권이 무너져 내린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6) 자녀를 왕처럼 떠받들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아 혹사시키며 로봇처럼 살아가게 하는 부모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7) 전교조 교사들이 역사를 왜곡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죄악과,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하고 그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미치게 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무너진 교육에도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그의 안에서 계속 살아가되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의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워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곧,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완전한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으니 그는 모든 권세와 권위의 머리시라(골2:6-10)”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 현장의 죄악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간구하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은혜 입을 자로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어떤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가 이 평화를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2-15)” 말씀으로 무너진 교육이 올바르게 재건되기를 간구합니다.

- (1)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교육이 회복되어 누구든지 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2) 일류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교육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교육이 실현되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3)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 전인적인 교육이 항시적으로 실행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4) 학교 폭력이 중지되고 힘없는 아이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의 기회를 누리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5) 교권이 회복되고 교사들도 직업이 아닌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6) 돈 있는 자들만 누리는 사교육 중심이 중지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평화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7) 전교조 교사들이 이념에 따라 편향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지되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역사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이 땅에 올바르고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편향된 교육이 실행되는 교육 현장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 기업과 경제를 위한 기도

## 기업과 경제인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에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고 그들을 고쳐주며 그들로 풍성한 번영과 안전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유다의 복락과 이스라엘의 복락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재건하리라 또한 내가 그들을 나에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범한 그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의 죄과를 사하리라 (렘33:6-8)” 말씀으로 기업과 경제인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더하소서.

- (1) 기업인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기업인들이 축적한 부를 사회 환원이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돈을 세탁하여 부를 축적하고 부정을 행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기업을 장악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건강한 기업 발전을 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강력한 노조들의 패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4) 가상공간에서 가상화폐와 코인 등을 생성하고 거래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조장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5)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해 온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6) 이 땅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숭상하여 돈을 벌기 위해 사기, 부정, 부패 거짓 모략을 일삼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한국 기업과 경제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가니 땅이 그 빗장을 잠가 나를 영원히 가두어 놓으려 하였으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이 썰물처럼 밀려나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당신께 이르고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욘2:6-7)” 말씀과 같이 이 땅에 경제 발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간구하고 공활히 여기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고 여호와여 당신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큰 경외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당신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우리 시대에 그것을 알리시되 진노 중에서도 공활을 기억하소서(합3:2)” 말씀으로 한국 경제와 기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 (1) 기업인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일삼는 부정부패가 중지되고 협력과 통해 상생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 (2) 기업인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를 가난하고 고통 당하는 계층을 섬기는 데 힘쓰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 (3)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노조단체들의 무력행사가 중지되고, 사주와 노사가 화합하여 서로 상생하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 (4) 가상공간에서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활동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 (5)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선교가 활발하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 (6) 이 땅 백성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죄악을 그치고 선한 청지기로 사랑을 나누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 발전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법칙이 실현 가능하도록 공활히 여기겠습니다.**

#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나라

## 대한민국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내치지 마소서 당신의 영화로운 보좌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마소서 당신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어느 나라의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당신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가 오직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렘14:20-22)”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대한민국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 (1)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원수로 규정하고 대치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핵무력을 완성하고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도 외교와 안보, 국방 정책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위정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국민을 섬기는 목적이 아닌 개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사용하고 남용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4)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본을 미워하게 만들어 국익을 저해하는 세력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5) 북한의 은밀한 지원과 배후 조종 아래 정치 및 세력을 형성해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6) 법을 제정하고 국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입법, 사법, 행정 분야의 위정자들이 국익은 뒷전이고 극한 대립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7) 최근 5년간 국가 부채 비율이 56.41%로 폭증해 2021년에는 1,064조 원에 이르렀고, IMF는 한국이 주요 경제국 중 향후 국가 채무비율 상승 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정부운영과 예산 집행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게 만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 2

##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고 요셉의 집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므로 그들에게 응답할 것임이라 그때에 에브라임 백성은 전사들 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로 기쁠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뛰리라 내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전 같이 많아지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에 흠었으나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며 자기 자녀를 기르다가 마침내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고향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앗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데려올 것이니 거기에 빈 자리가 없으리라 그들이 시련의 바다를 건널 때에 바다 물결이 잦아들고 나일의 모든

심연이 마르며 앗수르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애굽의 규가 떠나리라 내가 그들을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만들 것이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이르심이다(슌10:6-12)” 말씀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공훈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3

## 공훈히 여김을 받았으니 대한민국을 공훈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충실히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또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너희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오늘까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수23:6-10)” 말씀으로 대한민국에 공훈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 (1) 두 막대기를 묶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분단된 남과 북이 하루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공훈을 더하여 주옵소서.
- (2) 북한의 강력한 핵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위정자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외교와 안보 국방을 약화시키는 악행을 멈추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하나되도록 공훈을 더하여 주옵소서.
- (3)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도모하는 악에서 돌이켜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공훈을 더하여 주옵소서.
- (4) 반도국가에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이러

한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냉철한 안목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5) 남한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활동으로 북한의 적화야욕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백성들이 거짓과 선동에 속지 않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6)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되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7) 1,064조 원에 이르는 국가 부채가 하루 속히 상환되도록 국가 정책이 마련되고, 무엇보다 국가 예산이 낭비됨 없이 사용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을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하늘이여 기뻐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 뛰라 산들이여 노래를 터뜨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임이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내가 살아 있거니와 이는 여호와와 이르심이니  
네가 그들을 다 장식물처럼 몸에 차고 신부처럼 두르리라  
모든 육체는 내가 여호와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49:13,18,26)

# 복한을 공홀히 여기는 기도

“여호와여 당신의 모든 의로운 행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당신의 노와 분이 당신의 성읍 예루살렘과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의 많은 죄와 우리 조상들의 많은 악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모든 주변 사람과 모든 이웃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며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 당신 자신을 위하여 황폐해진 성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과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탄원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오직 당신의 큰 공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행하시며 미루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이는 당신의 성읍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입니다(단9:16-19)”

1945년 해방 이후 남한과 이민의 땅에 사는 우리가 극단적인 좌우 사상 대립의 와중에서 주의 공홀히 여기심을 받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환경으로 인도 받았으며, 이후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는 달리 참람하기 이를 데 없는 체제와 정권의 울

무에 갇힌 북녘 땅 성도들이 지금도 가혹한 통치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주께 호소하고 있음을 아시오니, 주의 긍휼하심을 먼저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 주신 그 크신 긍휼을 저들에게도 부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한과 이민의 땅에 사는 우리나라 북녘 땅에 사는 주의 백성의 어떠한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황폐한 북녘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치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 1 지하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제사장적 기도로 회개합니다

북한 지하성도들은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 절개와 인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오나 저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당과 국가라는 거대 통치체제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고 마는 죄악도 있음을 진솔하게 인정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것으로만 돌리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며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저들의 심정과 하나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1)**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옛적부터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아예 없으니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다 하신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것들은 전혀 리득이 못된다 그들의 증인들은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하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아무 유익이 없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려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러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 장색들은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으니 그들로 다 모여서 있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다수치를 당하게 되리라(사44:8-11)”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노동당의 강압적 지배 하에서 현실적으로 이상화에 순응하는 척하며 김씨 동상 앞에서는 절할 수밖에 없고, 혁명 사적지에서는 이상화 학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일상적으로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저들의 이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짠 물샘이 단물을 낼 수 없다(약 3:10-12)”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북한 성도들이 김씨 일가와 당을 칭송하고 충성을 표하는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삶의 애환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기회는 도무지 찾아 낼 수 없는 체제의 특성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마땅한 입술을 가졌고 타협 없는 순교적 신앙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저들의 거짓된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직한 증거를 제시하나 거짓 증인은 허위를 말한다 찌르는 칼 같이 성급하게 말을 내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료를 가져온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나 거짓된 혀는 잠시만 있을 뿐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만이 있으나 선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에게는 어떤 해도 림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고통이 가득하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

께서 역겹게 여기시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이다(잠12:17-22)” 말씀의 훈계에 따라 기도합니다. 생활총화 때마다 이웃 사랑의 마음은 뒷전으로 미뤄 놓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여 노골적 헐뜯기와 맹목적 비판으로 이웃을 몰아세우며 자신만 살아남기에 급급한 것은, 성도의 온전한 삶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이웃을 미워한 저들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4)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여호와와는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그것에 대하여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예표로 삼으며 네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신6:4-9)”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기초적 단위의 교회인 가정에서 신앙의 계승을 위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보다 당과 국가의 권세에 우선 복종하는 관행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일 피일 미루며 주저하고 포기한 것은, 체제의 과도한 강압과 하나님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미성숙 때문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세속 권세에 압도되어 신앙 계승에 소홀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5) “너는 이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딤후5:7-8)” 행할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도 가족 부양과 생계를 위해 처절한 돈벌이에 나서야 하기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고 나아가 가정파탄을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드러내기에 앞서 생존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세속적 생활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6)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 사이에 사림이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나눔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 합의가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6:14-16)”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기도합니다. 정권의 거센 탄압을 견디다 못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까지 갈 뿐 아니라 숨어 있는 이웃 성도들을 어쩔 수 없이 정권에 노출시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로 일제와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다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케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망각한 죄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순전함에서 떠나 배반의 유혹을 받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2

## 순교자들과 순교 지역을 올려드리며 그 땅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통이돌선교회가 2022년 10월 14일 ‘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선교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북한 순교자 지도’에 표기된 1957~2018년까지 신앙생활(성경 보관&배달, 복음 전파 등)을 하다가 공개 처형 등의 처벌을 받은 성도들의 상황을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조목조목 아뢰며 기도합니다.

### ① 평안북도 (순교자 9,531명 / 6.25전쟁 전 교회 479개)

- 1957. 8. 27. 평안북도 용천군,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선거 관련 사회안전원이 두 성도 가정 주일 예배 급습 후 이만화 목사 포함 36명 공개 처형

- 1958. 평안북도 신의주, 사범전문학교 학생들이 주말-주일 산과 들에서 비밀 신앙운동 발각되어 수많은 학생들 희생당함
- 1959. 평안북도 박천군, 인민학교 여교사 주일에 찬송가 가르치다 발각 처형
- 1961. 여름 평안북도 박천군, 5년 동안 토굴 생활하던 김 모 목사 포함 13명 발각 처형
- 1960년대 초반. 평안북도 운산군, '태극기 게양 사건'으로 기독교인 청년들 체포
- 2005. 9. 평안북도 신의주, 연산동에서 여자(나이 미상) 성경 발각되어 총살

### **② 평안남도 (순교자 1,191명 / 6.25전쟁 전 교회 370개)**

- 2001. 평안남도 강서군, 기독교 신자(약 55세, 여) 체포되어 처형
- 2018. 평안남도 평성, 성경 가지고 있다 2명 공개 처형

### **③ 평양시 (순교자 119명 / 6.25전쟁 전 교회 283개)**

- 1967. 여름 평양, 대흥수로 대동강 물 범람하던 때 숨어 있는 성도들 발각되어 처형

### **④ 남포시 (6.25전쟁 전 교회 96개)**

- 1968. 6. 평안남도 온천군(현재 남포시) 운하리 박 목사 사건, 사람들 앞에서 성경 태우라는 지시 거절 비밀리에 처형
- 1975. 6. 평안남도 평강군(1979년 남포시에 흡수), 25년간 간직해 오던 성경 발각되어 모녀 함경북도로 추방
- 2000. 남포시 천리마 구역, 목사 장로 등 교직자 47명 체포
- 2005. 4. 남포시, 102명 방송 들으며 신앙생활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처형되거나 요덕수용소행

### **⑤ 황해남도 (순교자 916명: 황해도 전체 / 6.25전쟁 전 교회 526개)**

- 1960. 8. 17. 황해남도 해주, 8명 기독교인 총살 처형
- 1970. 황해남도 배천군, 20여 명 예배드리다가 발각
- 1990 초. 황해남도 안악군, 86명 지하교인 발각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행

- 2012. 12. 25.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리, 성도 20~30명 처형당함. 당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3명은 직접 집에 찾아가 체포(연안군 창덕리 지하교회당 사건)

### **⑧ 황해북도 (6.25전쟁 전 교회 356개)**

- 2018.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성동에 위치한 길성포 항에서 기독교 전파 혐의로 2명 공개 처형

### **⑦ 자강도 (순교자 5명 / 6.25전쟁 전 교회 228개)**

#### **⑧ 양강도 (순교자 49명 / 6.25전쟁 전 교회 62개)**

- 1999. 12. 양강도 혜산시, 2명 총살. 그중 한 명은 성경을 외운다고 입을 때리고 이를 부러뜨린 상황에서 총살
- 2009. 혜산시, 과일 박스에 성경 받아들인 할머니 발각되어 수용소행(과일 박스에 있던 성경 외 다른 성경 가지고 있었음)
- 2015. 12. 양강도 삼지연시, 가택수색 중 성경 발각 체포 후 수용소행

#### **⑨ 함경남도 (순교자 377명 / 6.25전쟁 전 교회 254개)**

- 1973. 11. 30. 함경남도 신흥군, 3명 성도(노인) 인민 재판 후 25톤 소형 프레스에 압축 사망
- 1974. 10. 함경남도 함흥시, 운흥교회 김태용 목사 포함 18-78세 성도 36명 처형 (만세교 처형 사건)

#### **⑩ 함경북도 (순교자 2,157명 / 6.25전쟁 전 교회 168개)**

- 1964. 라진시, 현 라선시 해군 기지에서 군복 속에 성경 보관하던 사병 처형
- 1997 중순. 함경북도 온성군, 7명 예수님 믿고 전파하다 총살
- 1998 초. 함경북도 회령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청년 조00 이사 직전 처형

- 1998. 7. 1. 함경북도 온성군, 조성철 포함 6명 공개 처형. 조성철은 수십 권 성경 중국에서 가지고 와 고향 친구, 친인척들에게 배달
- 1998 여름. 함경북도 은덕군, 허00 외 2명 예수 믿고 복음 전파하다 총살
- 1999. 함경북도 무산군, 예수 전했다고 1명 총살
- 1999 말. 삼봉노동지구(현 온성군), 김00 전도 활동하다 처형
- 1999 말. 함경북도 청진시, 남자 2명 처형
- 2000. 12. 함경북도 무산군, 여(1951년생) 사망, 종교 활동 및 성경 유포 죄
- 2000. 12. 함경북도 청진시, 기독교인 11명 체포 즉시 공개 처형
- 2003. 함경북도 온성군, 공개 처형당한 사람 중 1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니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한 마디 후 총살
- 2004. 6. 함경북도 온성군, 은미(9살 여) 성경책 소지 이유로 잡혀 소년교양소로 이관

### **⑪ 개성시 (6.25전쟁 전 교회 31개)**

- 1958-1960. 개성, 소아과 여의사 이정옥 아침-저녁 기도하다 발각되어 처형

### **⑫ 강원도 (순교자 330명 / 6.25전쟁 전 교회 162개)**

- 1960년대 초반. 강원도 원산, 철도공장 근로자 십자가 목걸이 발각되어 처형되기 전 원산-홍남 및 인근 도시 기독교 단체 존재 실토함. 공산당 간부 가족도 연루되어 상당한 시일 지난 다음 숙청(원산 철도 공장 십자가 사건)
- 1974. 강원도 원산시, 배태엄 성도 심문받다 사망
- 2003. 원산, 00 감옥에서 흥00 아들 감옥에서 전도하다 순교
- 2008. 7. 원산 출신 여성(65세 정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 후 소지품에서 성경 발각 보위부 구류장에서 사라짐

### **⑬ 그 외 순교지역**

국경(순교자 31명), 북한의 모든 지역(순교자 210명), 알려지지 않은 지역(순교자 2,041명)

북녘 땅에 흘려진 순교의 피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 하나님, 1957~2018년까지 00 지역에서 순교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땅은 물론 오늘날 동일한 곳에서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1) 00 지역이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계승하는 이 시대 참된 신앙의 터전으로 흥왕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벤 풀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시72:6-11)”

### **2) 00 지역에서 열악한 여건에도 자족하며 신앙을 지키는 지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저들이 탄압받는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며 누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그릇되게 온갖 악담을 퍼부를 때에 너희가 복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 이전의 대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마 5:10-12)”

### **3) 지하교회에서 또 다른 지하교회를 개척하는 일꾼들이 체제와 정권이 가하는 폭압적 힘과 능력에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말씀의 강력을 따라 성경배달과 교회 개척에 날마다 승리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1:16-19)”

### 3

## 최근 북한 상황을 아뢰며 주민과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1) 핵무력 정책법 제정의 의도와 파장을 막아서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실전 사용 가능하도록 폭발력을 낮춘 ‘전술핵’을 최근까지 꾸준히 개발해 온 북한은 마침내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와 남한을 향해 노골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기간 일관된 핵 정책을 추진하며 실전용 핵무기 개발로 현실적 능력을 구비하였음은 물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명분을 던지는 모습은 가히 뱀같이 지혜롭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상관없이 스스로 핵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선 비핵화와 후 경제적 혜택 부여’라는 남한과 미국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독자적 노선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통행적 법 제정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핵무



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북한 주민 전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주민 모두를 핵 인질로 삼아 김정은 정권과 일부 특권층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계략이기에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1) “여호와와는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그의 모든 행위에서 온유하시며 여호와와는 자신에게 호소하는 모든 자 곧 진심으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또 여호와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여호와와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보존하시나 악한 자는 다 멸하신다(시145:17-20)”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남북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정권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이 핵무기의 남용과 오용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 전체, 나아가 온 세계를 핵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2) “우리의 전투 무기가 세상 무기들이 아니라 오직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쌓아 올려진 모든 주장과 모든 오만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니(고후10:4-5)”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배후에서 사악한 지혜와 지식을 불어넣으며 남북한이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통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가 당신께 아뢰니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사연을 들으소서 대적들을 피해 당신께 피신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하는 구원자시여, 당신의 놀라운 인의를 보이소서 눈동자 같이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시되 나를 물어뜯는 악인들, 곧 나를 에워싸고

내 생명을 노리는 적들에게서 나를 지키소서 그들은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으로 오만하게 지껄입니다(시17:6-10)”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과 남한 국민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핵 노예가 되고 있는 상황을 주께서 하감하옵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 2) 전술핵 운용 부대 실전 훈련과 동시다발적 대남 군사도발 상황을 아뢰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더 이상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한 이후 실전적 군사 행동에 나서며 전술핵 부대의 실전 훈련과 무차별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대남 군사공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이 상호 공멸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한을 향해 극단적 방식의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육해공 정규군에 더하여 매우 특수하고 호전적인 병력집단인 ‘전략군’을 거느린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을 실전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전략 전술을 이미 갖추고 있고 날로 고도화할 것이므로 남한과 미국이 방어하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 (1)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모략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고 조언과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헐어버리시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놓아줄 수 없으며... 또 그가 나라들을 커지게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나라들을 넓어지게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며 온 땅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로 길 없는 황야에서 떠돌게도 하시며 빛 없는 흑암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신다(욥12:13-14; 23-25)” 소위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 최강에 속하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북한 정권의 자고하는 능력이 주의 모략과 지혜 앞에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완벽을 기해 무장한 핵 전력이 결국은 자신들을  
움아매는 울무와 함정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막강 군사력이 오히려 체제와 정  
권의 멸망을 불러오는 자총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 주민과 성도들  
모두가 핵 전쟁에 희생되어 공멸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적수와 대적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매 하만이  
임금과 왕후 앞에서 심하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진노하며 그 잔치 자  
리에서 일어나 임금의 궁전 뜰로 들어갔으나 하만은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걸하였다 임금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것  
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궁전 뜰에서 잔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 있는 긴 의자 우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왕후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데도 저가 왕후를 범하려 하는가 하니 임금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임금을 모시고 있는 환관들 가  
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임금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한 모르드개를 매달고자 하만이 높이가 신 암마나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달았고 이로써 임금의 진노가 가라  
앉았다(에7:6-10)” 말씀과 같이 북한의 사악한 핵도발과 술수가 오히려 저들을  
움아매는 울무와 함정과 자총수가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 **3)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활성화로 체제와 정권의 몰락을 앞당 기도록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여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실제적 우회 전략은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대한 주민  
의 충성심이 이상숭배 강요와 세뇌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때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이 체제의 거짓됨을 자각하고 비  
판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정보와 접해야 합니다. 북한 안

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은 풍선 날리기, 비무장 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 AM.FM 라디오 방송,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 전화 등 다양합니다. 북한 정권은 외부 정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외부 정부 유입자들에 대한 발본 색원), ‘청년자유교양법’(외부 문화 수용력이 높은 북한 청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적 조치들이 무력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이에 대항하여 남한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이 폐기됨은 물론 대북정보유입촉진법(가칭)이 제정되어 대북 심리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민간단체의 대북방송과 한류 문화 콘텐츠가 북한으로 적극 유입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 “그 정탐군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대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소 그대들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덮쳤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이 그대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소 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대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신 일과 그대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고 그대들로 인하여 아예 얼이 빠져버렸소 이는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임이 우로 하늘과 아래로 온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오(수2:8-11)”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핵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인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하는 일이 날로 활성화되어 체제의 견고한 진에 균열이 생기게 하옵시고, 이를 계기로 진리의 말씀이 북한 전역을 뒤덮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 결과 현재의 북한 체제와 정권은 속히 허물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권 세력과 국가 운영 시스템이 들어서도록 북한 땅과 백성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 “너는 나의 전투 무기인 몽둥이니 내가 너로 민족들을 산산이 부수고 너로 나라들을 멸하며 너로 말들과 말 탄 자들을 산산이 부수고 너로 병거들과 병거 탄 자들을 산산이 부수며 너로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을 산산이 부수고 너로 늙은이들과 소

년들을 산산이 부수며 너로 목자들과 그 양떼를 산산이 부수고 너로 총독들과 부관들을 산산이 부수며(렘51:20-23)”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외부 정보를 북한 안으로 유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막강 군사력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을 패망케 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4) 북한 정권의 국내외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하며 주의 공황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파견 무역 기관에 당자금(통치자금) 상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하달하여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외화벌이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상납금(총성자금) 비율을 높여 임금의 대부분을 갈취하고 있는데 월급의 약 98%를 당 상납금으로 거두어 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도 겨우 2%의 임금만을 생활비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4~6시에 출근, 밤 10시 - 12시까지 하루 16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며 고작 월급 2,800~3,200위안 수령) 그러나 인력 관리자들은 “조국(북한)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데 돈 바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50위안도 조국에서는 큰돈이다.”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의 안녕을 최우선시한다는 인민대중주의를 표방하며 북한 최고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특권층과의 야합을 통해 대다수 주민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해 왔습니다. 국내 노동자와 해외 파견 노동자 모두가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며 임금의 대부분을 당국에 갈취당하는 가운데 최저 생활도 보장받기 힘든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며 하루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나라들을 판결하십니다 여호와와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요새이며 환난 때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니 이는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행적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피값을 값으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많은 고난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사망의 문에서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딸 시온의 문에서 당신께 대한 찬양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시9:8-14)”

북한의 이상승배 정권이 속히 허물어져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여 주민 탄압과 독재에 악용하는 김정은 정권이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되게 하옵시고, 저 사악한 정권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와 통치그룹이 속히 들어서게 하옵소서.

## 4

###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62:1-5)”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상과 커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모퉁이돌선교회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합니다.

모퉁이돌선교회 <http://www.cornerstone.or.kr>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2088호(우:06336) 전화(02)796-8846

팩스(02)792-7567 이메일 [main@cornerstone.or.kr](mailto:main@cornerstone.or.kr)

Cornerstone Ministries Int'l(미국) <https://www.uscornerstone.org>

P.O.Box 4002 Tustin. CA 92781 Phone (714)484-0042

Fax (714)484-0016 e-mail [info@cornerstoneusa.org](mailto:info@cornerstoneusa.org)

Cornerstone Ministries of CANADA(캐나다)

10-8707 DUFFERIN ST, (UPS) SUITE #119 VAUGHAN, ON CANADA, L4J 0A2

Phone (416)206-9191 e-mail [info@cornerstonecanada.org](mailto:info@cornerstonecanada.org)

모퉁이돌 강화훈련원 <https://cornerstonegtc.org/>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133 전화(032) 933-8846

팩스(032) 932-8847 이메일: [main@cornerstonegtc.org](mailto:main@cornerstonegtc.org)